

학교법인 창성학원

2025학년도 제14회 이사회 회의록

| 구 분 | 이 사 | 감 사 |
|-----------------|-----|-----|
| 임원정수 | 8 | 2 |
| 재적임원 | 2 | 0 |
| 종전임원 (긴급처리권) | 2 | / |
| 참석임원 | 4 | 0 |

1. 회의일시: 2026.01.30.(금) 10:00-10:33

2. 회의장소: 대덕대학교 정곡관 10층 소회의실 또는 Zoom화상회의 참석

3. 회의 소집 통보일: 2026.01.22.(목)

4. 임원 출석 현황

□ 참석인원(4명)

- 재적이사(2명): (직접참석) 임정섭, 성차용
- 종전이사(2명): (직접참석) 김대성, 이정민

□ 불참 인원(5명)

- 종전이사(3명): 강경래, 김태근, 김현리
- 감사(2명): 장숙영, 조현준

□ 배석자:

- 법인사무국(3명): (간사) 김영훈 총무처장, 윤지연 과장, (서기) 최보경 담당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성차용 |
|----|-----|----|-----|----|-----|

5. 회의안건

가. 의결 안건

- 제1호: 대덕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DDU Vision2030) 재수립(안)
- 제2호: 학교법인창성학원 정관 개정(안)
- 제3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신규임용 동의(안)
- 제4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재임용 동의(안)
- 제5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파견근무 및 겸직 동의(안)
- 제6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7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8호: 중등학교 교원 복직 동의(안)
- 제9호: 학교법인창성학원 개방이사 추천(안)
- 제10호: 김조용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1호: 강경래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2호: 김대성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3호: 김현리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 제14호: 임정섭이사 후임이사 선임(안)

나. 기타 협의 및 보고안건

- 제1호: 이○윤 교사 합격자 취소 보고(안)
- 제2호: 2026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신규교사 채용 협의 승인 취소 보고
- 제3호: 2025학년도 학교법인창성학원 법인 일반업무회계 예산전용 보고
- 제4호: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다. 기타 안건

-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 건

6. 회의 내용

가. 성원 보고

2025학년도 제14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거 재적 이사 2명, 종전 이사 2명 총 4명이 참석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간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 선언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송차용 |
|----|-----|----|-----|----|-----|

의장(이사장: 임정섭) 2025학년도 제14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금번 이사회는 지난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준용하여 긴급처리권을 종전이사에 부여해서 진행하는 회의라고 하다. 참석이사의 이의가 없으면 이사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다. (*참석이사의 이의제기 없음.)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이사회가 개회는 되었으나 의결정족수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 총 5인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상정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사회가 개회가 되었으므로 교육부에 방문한 내용과 긴급처리 안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참석이사에 동의여부를 묻다.
(*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이사 김대성) 금일 10시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2일에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교육부는 언제 방문하신 것인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소집통지 이후 1월 27일 화요일에 교육부에 방문했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본인은 소집통지 전에 교육부를 방문했다고 하다. 상정된 안전 중 제5호 대덕대학교 전임교원 파견근무 및 겸직 동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대학의 입장은 해당자가 평가의 전문가이고 인증원에서 관련 일을 해왔던 사람이며, 전국단위 공모에 해당 조건을 갖추어 지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다. 대학 차원에서 인증원에 가서 원장 역할을 한다면 우리 대학에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하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와 대학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여, 추천요구에 추천을 진행하였다고 하다. 인증원 파견 조건이 인건비는 우리 대학에서 부담하고, 인증원에서는 수당과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2월 1일자 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다.

(이사 김대성) 대학에 도달한 공문 상으로는 1월 19일까지 발령을 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 인증원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지만 이사회의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다. 다만, 금일 이사회 소집통지가 되어 있으니 오늘까지는 말미를 달라고 인증원에 요청을 했고 인증원에서도 오늘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주었다고 하다. 따라서 금일 이사회가 되지 않으면 연기가 필요하진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다.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성차용 |
|----|-----|----|-----|----|-----|

(이사 성차용) 인증원에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다. 업무 방해로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다. 평가 인증원에 파견을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다. 총장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보내고 싶은 것은 이해된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막을 이유는 없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린 이유는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다. 당시 보직 교수 중에 현 부총장도 있었다고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없고, 고통분담은 오롯이 임금 삭감까지 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에 있다고 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하다. 이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하다. 또한 본인이 교육부에 다녀온 것은 문제는 없었고 교육부에서는 이사 선임은 3월까지는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은 이번주에 교육부에 방문했고, 성이사는 지난주에 교육부에 방문한 것 같다고 하다. 본인은 공식적으로 교육부의 요청에 의해 전문대학지원과의 과장, 사무관, 주무관을 만났고 법인에서는 윤 총무과장이 함께 배석해서 총 5명이 면담을 했다고 하다. 현재 우리 법인에 정이사가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 부존재 상황으로 최소 2월, 늦어도 3월 전까지는 후임이사를 선임하라는 의견이었다고 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사와 잘 상의해서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다. 또한 긴급처리권 관련해서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은 첫 번째 후임이사 선임, 두 번째는 대학 및 산하기관의 예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건만 처리하고, 이후 정이사 체제가 되었을 때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을 비롯하여 그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왔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그렇다면 대학 구조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다.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현재는 계류 중인 안건과 더불어 대학 전임교원 파견근무까지 추가하여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전이었는지를 묻다.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성차용 |
|----|-----|----|-----|----|-----|

의장(이사장: 임정섭) 그렇다고 하다. 소집통지를 할 당시에는 계류 중인 안건과 더불어 전임 교원 파견 건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모두 소집통지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모두 정리를 해주었다고 하다. 또한 금일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 이므로 정이사가 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이야기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안건은 후임 이사 선임(안)인데 현재 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다. 이사회를 하기 전에 먼저 사전 교감을 거쳐서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사전 과정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이사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사께서는 후임이사 추천을 해주시고, 이사회를 하기 전 이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 학원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로 이사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다른 관할청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사를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또 하나는 교육부에서는 개방이사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개방 이사는 지켜보고 정이사 5명에 대해서는 구성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니 교육부에서는 개방이사를 제외하고 정이사 선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하다. 그래서 아마 이사장의 방문을 요청한 것 같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개방이사 선임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상임이사께 그렇게 말하였지만 본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다. 개방이사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므로 차차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개방이사 선임의 절차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이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목을 잡아 교직원 임금체불의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이치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김대성) 그 부분은 정이사 두 분이 교육부에 방문을 하셨으니 두 분이 판단해서 해결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다. 교육부와 함께 삼자대면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정이사는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이사 선임(안)을 한 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전에도 현재 이사의 후임이사 선임(안)의 안건명으로 별건으로 진행했다고 하다.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성차용 |
|----|-----|----|-----|----|-----|

(이사 김대성)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등기도 할 수도 있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다.

(이사 성차용) 김조용이사는 종전이사도 아닌 상황이므로 안전명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김조용 이사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다. 이사회 회의록에 김조용 이사 후임으로 누가 선임됐는지가 나와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다. 이것이 맞는 절차이고 잘못하면 하자가 된다고 하다. 그러면 폐회 전 2월 이사회 날짜를 정했다면 좋겠다고 하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월 23일 전까지는 예결산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다. 이때 까지 후임이사를 어떤 분을 모실지 각자 생각하고, 그 전에 협의를 거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다. 이때 예산안은 모두 진행하고, 정이사 선임 이후에 다른 안전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정상화가 학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의적으로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기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하다.

(이사 성차용) 2월 23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사전에 이사님들과 협의 후 이사추천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다. 기타안건

의장(이사장: 임정섭) 제1호.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을 상정하다.

의장(이사장: 임정섭) 본인을 포함하여 간서명은 김대성, 성차용 이사가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참 석 이 사) 동의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이 오늘의 이사회 마무리 발언에 이어 폐회선언이 있음. (*2026.01.30.(금) 10:33)

| | | | | | |
|----|-----|----|-----|----|-----|
| 이사 | 임정섭 | 이사 | 김대성 | 이사 | 성차용 |
|----|-----|----|-----|----|-----|

2026.01.30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임정섭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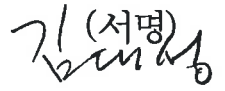
이사

강경래

(서명)

이사

김대성

 (서명)

이사

김태근

(서명)

이사

김현리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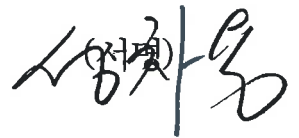
이사

이정민

 (서명)

이사

성차용

 (서명)